공학대전, 졸업작품 전시회 및 과제전 전시회

2021182024 유민규

우선 1학년(21년도)때의 졸업작품 전시회는 COVID-19이였다보니 관람하기 쉬운 여건이 아니였고 영상시청으로 주로 보고 직접 참여는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여러가지 졸업작품들 및 과제전들을 참여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다.

과제전을 보며 어느 형태로 진행되는지 보고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숨은 고수들도 많고,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간 것 같다. 219호에서 전시된 졸업작품은 전시장 자체가 혼잡스럽기도 하였지만 협소하여 졸업작품에 대한 설명도 읽기 힘들고 참여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 아쉽다. 320호에 전시된 작품들은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어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고 특히 작품들중 ‘잇 업 올’은 게임성도 우수하고 그래픽도 좋았어서 우수상은 수상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봤는데 우수작이 아니였다보니 어떤 부분이 다른 우수작에 비해 부족했었는지 궁금하다 다양한 기능이 없었던 부분이 결점이었던 것 같지만 자세한 평가가 궁금하다. 이 작품 뿐만 아니라 타임런,더 토이즈등 괜찮은 작품들도 많았다.

체육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봤을 때 다른 학과들 작품들도 볼 수 있어 다양한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. 수상하는 모습들도 보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며 1학년때는 많이 부족했었고 2학년이 되고나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졸업할 때 나도 저런 수상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.